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9. 17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	760-7250
	농업관측팀장	김동현	☎	760-7271
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	760-7514

올해 제주산 양배추 5% 줄고 브로콜리는 지난해 수준 전망

- 농업기술원, 10~14일 작목별 모니터링…정식률 양배추 70%, 브로콜리 40% -
- 9월 기상이 핵심 변수…고온·가뭄 속 초기 생육 관리가 관건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26~2027년산 양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5% 가량 줄고 브로콜리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.
-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작목별 모니터 조사를 바탕으로 농가의 재배 의향과 정식 동향, 현장 의견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.
- 양배추는 지난해 가격 약세로 재배 의향이 줄고 콜라비와 적채 등으로 작목을 바꾸는 농가가 늘면서 지난해 2,040ha보다 5% 감소한 1,940ha 안팎으로 예상된다.
- 브로콜리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지만 한 번에 수확해야 해 일손을 구하기 어렵고 노동강도가 높은 데다 농업인 고령화까지 겹쳐 지난해와 비슷한 1,080ha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.
- 14일 기준 양배추 정식률은 70%로 지난해와 비슷하고, 브로콜리는 40%로 지난해보다 10%p 높다.
- 대정과 고산 지역을 중심으로 정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양배추는 9월 20일, 브로콜리는 9월 30일을 전후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출하 시기와 저장성을 고려한 품종 선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.
 - 양배추는 저장성이 좋고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유리한 중생종 비중이 지난해보다 5%p 늘어 65%가 됐다. 브로콜리는 출하 초기 가격이 높았던 영향으로 조생종 비중이 5%p 높은 25%로 늘어날 전망이다.
- 올해 작황의 가장 큰 변수는 기상이다. 제주지역 8월 평균기온은 29.2도로 평년보다 2.1도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의 22%에 그쳐 고온과 가뭄이 이어졌다.
 - 9월 강수 여부에 따라 정식 일정과 초기 활착이 달라질 수 있어 토양 수분 관리 등 정식 초기의 생육 관리가 중요한 만큼, 농업기술원은 기상 상황과 정식 진행률, 초기 생육을 계속 살피며 주요 월동채소의 재배 동향과 수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.
-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정식 이후 가뭄이 이어지면 초기 활착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” 며 “주요 월동채소의 파종·정식 동향과 생육 상황을 농업인과 유통인,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돕겠다” 고 말했다.